

# 크레이그 키너 박사, 사도행전, 강의 21, 사도행전 21-22장

© 2024 Craig Keener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Dr. Craig Keener입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22장까지의 21회기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여행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그가 바울과 함께 여행하는 짧은 자료 동안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고대 청중에게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청중은 소설과 역사 작품 모두에서 여행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여행에 관해 이야기하는 편지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장소에 대해 들어본 교육받은 도시 청중들 사이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공명, 그들이 이 장소에 대해 들었을 때 상상하거나 생각하게 될 특정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지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 읽을 때 구약성서나 신약성서의 일부를 읽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글쎄, 그들은 이러한 유적지 중 많은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유적지에서 일어난 다양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그들의 마음 속에 도움이 되는 연관성이었습니다. 글쎄, 그것은 Luke의 원래 타겟 청중을 위한 많은 사이트에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현대 청중에게는 흥미롭지만 우리가 실제로 다루어야 할 다른 것들만큼 흥미롭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그는 코스(Kos)와 로즈(Rhodes)로 통합합니다.

이들은 에게해의 중요한 섬이었습니다. 로즈는 처음부터 로마 편을 선택했고 로마로부터 정말 좋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주요 생산물, 와인 가격 등을 생산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그들이 지나가던 매우 중요한 에게해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남부의 항구였던 파도바(Padua)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곡물 무역으로 인해 그곳에서 출발하는 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계절풍 등으로 인해 로마에서 알 수 있고, 우세한 바람 때문에 로마에서 알렉산드리아를 향해 다시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일반적으로 북쪽으로 항해한 다음 지중해를 건너 서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 소아시아 항구는 알렉산드리아와 로마 사이의 곡물 무역의 주요 항구였으며, 이는 로마제국 최대의 무역 형태였습니다.

21절 3절과 7절에서는 두로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청중들이 티레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아마도 알렉산더 대왕이 티레를 파괴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섬 왕국에는 경사로가 건설되었고 이제 티레는 본토 어딘가와 경사로를 따라 섬 자체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의 청중이 다른 생각을 했을지라도 그들은 적어도 누가가 전에 두로를 언급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0장 13절과 14절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갈릴리 마을들보다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더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제로 두로의 일부 사람들이 회개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강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바울이 페니키아 교회들에서 15장에서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이것이 포함됩니다. 27장에서 그는 실제로 페니키아에 있는 시돈 주변에서 환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설명된 모래사장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고대에 유리를 만들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또한 두로가 12장 20절에 언급된 이유는 그들이 유대에서 식량 공급을 중단한 첫 번째 그리퍼 헤롯과 문제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경쟁이 없습니다. 이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입니다.

이것은 민족적 갈등, 민족적 경쟁이 왕국의 본질이 아니라는 정말 좋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자매라면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를 찾고 환대와 은혜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27장에서는 백부장 율리우스가 놀라워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백부장은 음식을 요청해야 합니다. 음, 우리에게 음식을 주세요. 나는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다.

음식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Paul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기꺼이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람이 이 운동에서 존경을 받고 있고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민족이에요.

유대에서 본 것처럼 이방인에 대한 유대의 편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편견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중 일부가 우리나라를 방문했다면 그곳이 가장 친절한 문화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배적인 문화, 즉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에만 얽매어 있고 그들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항상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환대를 경험했을 수도 있고 경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여러분은 제가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에 갔던 일부 문화권에서와 같이 이곳과 다른 서구 문화에서는 동일한 환대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친절하고 친절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이를 준 사람들의 이름을 실제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프톨레마이오스는 7월에 그곳에 도착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두로에서 30마일, 즉 48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곳으로 어떻게 여행했는지조차 정확히 모릅니다.

그들은 육로로 여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30마일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는 이곳에서 신자들과 함께 머물렀다.

즉, 운동이 확산되었다는 뜻이다. 이방인들 사이에 운동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여기저기서 우리에게 단편을 주고 있지만 바울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는 것 외에도 설명되지 않은 것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바울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이방인 기독교 운동을 옹호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여기서 예언에 관한 흥미로운 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21장 4절에 보면 영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나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영에 매우 민감할 때라도, 사람들이 대체로 옳을 때라도, 누군가가 성령이 당신에게 뭔가를 하기를 원한다고 느낀다고 해서 스스로 알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양한 학교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주님께서 당신이 우리 학교에 와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고 말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저는 그 무게를 매우 조심스럽게 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학교 중 일부에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수년에 걸쳐 나를 데려가신 곳에서는 대개 충분한 확증을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지만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나는 듣지 못했다. 나는 아무 것도 듣지 못했지만 이삭이 리브가의 말을 들었다면 야곱과 에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그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믿음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내가 있는 곳을 너무 사랑해서 이사하는 것에 대해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인은 꿈에서 나중에 온 것이 아니라 이사하기 전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지 이미 결정을 내려야 했던 후에 왔습니다. 적어도 내 인생의 계절에는 이곳이 나에게 딱 맞는 장소가 될 것이라는 많은 확인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종신 복음 전도자인 빌립처럼 그는 가이사랴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루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의 내용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었던 것과 바울이 자신이 이 일을 해야 한다고 확신했던 것과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누가는 요한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들었다고 말합니다. 가장 최근의 일은 나인성 아들의 과부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는 이 놀라운 일들을 듣고 그것을 예수께 보내면서 “기대하신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찾아야 합니까?”라고 말합니다. 왜 그가 이러한 기적에 대해 들었을 때? 자,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구에게나 불 속에서 세례를 베푸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왕국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사야 35장과 61장의 언어로 그에게 대답하시며, 왕국 봉사과 병 고침 등과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 좋은 소식의 일부가 미리 맛보게 됨을 보여 주십니다. 내 말은, 그들은 왕국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국을 미리 맛보는 것은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은 살아서 그 성취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요한이 주님의 말씀의 일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전서 13,9장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르침과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부만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사와 가까이

지내던 엘리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동네의 선지자들이 그에게 와서 이르되, 오늘 네 주인이 네게서 데려가실 줄을 네가 아느냐? 그는 알아요, 조용히 하라고 하더군요.

그가 다른 동네로 가니 그 곳 선지자의 생도들이 그에게 와서 이르되 오늘 네 주인이 네게서 데려가실 줄을 네가 아느냐? 그리고 그는 알아요, 조용히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그를 떠나갔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옵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은 것을 모두 보고, 어쩌면 주의 영이 그를 어떤 산이나 다른 곳으로 데려가셨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의 시체를 찾으러 가자. 그리고 엘리사는 보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에게 촉구했고 마침내 그는 계속해서 살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다시 와서는 우리가 그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는 내가 말하지 않았나요? 보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보다 더 완전한 그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엘리야가 어떻게 끌려가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모세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는 내가 환상이나 꿈으로 선지자에게 말하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든지 저렇게 말하든지 다만 모세와 대면하여 말할 뿐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우리가 알려진 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는 필요한 것을 얻습니다.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신약성경에 있는 것, 바울이 이 인도를 받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것, 여기 가지 마세요, 여기에 가지 마세요. 그는 계속 여행을 하다가 마침내 꿈을 갖게 된다. 그는 지금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소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방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직면하게 될 일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것은 옳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또한 영에서 난 것이며 영의 열매입니다.

그들은 그가 그런 일에 직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을 통해 말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지 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유대 해안에 있는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것을 항상 유대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에서 그곳으로 오는 사람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유대의 로마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빌립을 발견하고 그들은 한동안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가 많이 배운 빌립입니다. 아마도 바울과 빌립은 많은 일,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러한 과거의 일들과 사울과 빌립이 겹치는 시기에 사도행전 8장에서 읽은 것들에 대해 정말로 주의를 기울이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박해자였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네 딸이 여기 9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선지자이거나 여기서 헬라어 분사는 아마도 헬라어 동사 시제이지만 요즘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지만 아마도 그들이 정기적으로 예언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누가복음 2장의 안나와 같은 여선지자였다는 뜻입니다. 글썄요, 누가복음 2장의 시므온과 안나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빌립의 네 딸이 있고 아가보가 곧 고위급

선지자로 등장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에 너희 여자가 있는 곳에는 너희 아들딸들이 내 남종과 여종에게 예언할 것이요 내가 내 영을 부어 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라.

또한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셨습니다. 음, 여기에는 젊은이와 노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별이 모두 있습니다.

나는 아가보가 늙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마도 늙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는 몇 년 전인 사도행전 11장보다 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그 사람은 그들보다 나이가 많아요. 물론 그들이 처녀라고 말할 때, 당신은 훨씬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처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대에는 특히 유대인의 맥락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마도 1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12세에서 14세 정도이거나 그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사용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기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에 관해 예언하고 있었습니까? 글썄, 거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이 동참한 것은 아가보의 예언 이후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즉 누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처럼 아가보도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허리띠, 아마도 바울의 띠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표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정확히 넘겨주지 않는 것처럼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로마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그를 구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깝습니다. 구약의 일부 예언에도 같은 종류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다른 사람들도 같은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엔 이것이 예수님이 유대 당국에 의해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것과 아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루칸 수준에서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아가보의 수준에서도 기본적인 요점이 되는 구약의 예언이 있습니다. 항상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세부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다 말하되 바울아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더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실제로 다양한 디아스포라 교회의 대표자들이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아마도 이방인이었을 것이며, 이 컬렉션을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한 서신을 통해 이를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누가 시대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나는 아가보의 예언적 행동에 대해 더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선지자들의 성격 등에 관해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구약성경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성서인 Kol Amar Adonai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는 tadelege가 될 것입니다. 글썄요, 여기서는 tadelege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을 대신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언의 영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고난을 겪게 될 모든 도시에서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가 본 것과 일치합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간다. 그들은 오랫동안 함께해온 오랜 제자, 므낫신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갈 사람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내부는 훨씬 더 위험했을 수도 있지만 가이사랴에는 혼합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있습니다.

적어도 고넬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어쩌면 빌립의 사역에 대해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가 한 이방인에게 다가갔다고 이미 언급되어 있고 누가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길을 따라, 해안 길을 따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사는 도시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는 주로 유대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Manassin에서 숙소를 구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Philip과 함께 숙박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숙박을 한다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미 합의한 바에 따라 이방인 신자들을 기꺼이 맞이하려는 신자들이 그곳에 있다는 메시지를 실제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화해를 가져오고 유대 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 사이의 차이점을 가져오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풀이 옵니다.

Luke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지만 컬렉션을 전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실제로 헌금을 거부했다고 생각하지만, 고대에 헌금을 거부하는 것은 적대감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심각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 적개심을 선언하고 싶어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그의 재판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글썄요, 첫 번째 청문회에서는 그 일을 하도록 조직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 말은, 바울이 가이사랴를 떠난 직후, 아니면 아마도 가이사랴를 떠나기 전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바울이 가이사랴를 떠나 로마로 떠난 직후일 것입니다. 아니요, 바울이 가이사랴를 떠나 로마로 떠난 후입니다.

베스도가 죽은 후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난 지 몇 년 안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자 예루살렘에서 큰 존경을 받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대제사장에게 순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더욱이 우리는 그들이 바울을 대신하여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왜 그들이 그를 대신하여 편지를 보내지 않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는 이미 21장에서 야고보와 야고보와 장로들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말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쨌든 우리는 21장 20절부터 26절까지 화해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5장을 통해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이 화해의 사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글썄요, 야고보와 장로들이 우리를 영접합니다. 누가는 누가가 그곳에 있었고 우리를 따뜻하게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들에게 인사했고 그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20절에서 야고보는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유대에는 수만 명의 신자가 있는데, 이는 요세푸스가 추정한 약 6,000명의 바리새인들보다 그들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또한 율법에 대해서도 열심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화 내에서 좋은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후에는 성경이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모든 상황이나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반드시 땅 밖에서 작용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좀 더 설명하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누가복음의 내용에 머물면서 율법에 대한 경건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은 율법을 경건하게 대하는 내용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식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서 자신의 경험과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조할 때 아나니아가 그런 식으로 묘사될 것입니다. 커뮤니티를 상황화하고 동일시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이방인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수만 명이 율법에 열심입니다.

글쎄요, 약 10~15년 전부터, 아그리파 1세 시대부터 유대 민족주의가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요세푸스에게서도 그것을 봅니다. 이로 인해 로마와의 긴장이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이 속주에 파견된 로마 총독들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더욱 큰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시리아 지방의 일부가 아니었고 파견하기에 이상적인 장소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사이 좋게 지내기가 어렵다고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문화적 충돌이 있었고 그곳의 주지사였던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그곳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펠릭스가 왜 거기에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언급한 바울이나 야고보가 언급한 바울에 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21장 21절에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이러한 소문은 그가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썄요, 폴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으며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느니라.

그는 유대인에게 유대인이 됩니다. 그것은 그에게 쉬웠을 것입니다. 그리스인에게 그리스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의 관습을 지키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러한 관습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James는 우리가 이미 그것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바울이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과장했습니다. 요즘 그런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라건대, 여러분 중 누구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입장을 취하고 그것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축소하거나 그들이 실제로 말하지 않은 방식으로 확장하면 이것이 그들이 의미하는 바이거나 이것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고 싶지만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카이사르가 로마에 없을 때 그의 적들과 로마에 있는 그의 경쟁자들은 그에 대한 소문, 즉 불쾌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을 때 그의 적들은 그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바울의 글인 로마서 3장 8절에서 사람들이 선을 행하여 악이 오게 하자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면 고린도후서 6장 8절을 보면 좋은 평판과 나쁜 평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해 나쁜 말을 합니다. 글썄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토라를 지키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방식은 서원을 한 일부 나실인들을 지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는 바울이 성전에 들어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희생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는 것을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대 관습을 강요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선교사가 갈 수 있는 것과 같은 길로, 예를 들어 당신이 프랑스나 러시아 출신이라면, 아니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중국 출신 선교사이고 짐바브웨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떠났다고 합시다. 사업가로서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짐바브웨 사람들에게 중국 관습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으로 돌아가면 중국에 있는 국민에게 현지 쇼나족 관습이나 기타 짐바브웨 관습을 강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문화적 맥락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문화적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백성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희생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원은 아직 서 있습니다.

심판을 받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일부 유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주요 도시는 로마의 아시아 속주에 있는 에베소였습니다. 기억하세요, 바울은 19장 8절과 9절에서 그들의 회당을 쪼개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헬라인들을 성전에 데려왔다고 비난하고 이에 대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비난에는 근거가 있었지만 이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의 이방인 드로비모를 바울 일행의 일부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왔고 그들은 '아, 저 사람은 이방인이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풀이 그와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성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는 그것을 거짓 비난이라고 보고합니다.

바울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때때로 제한된 증거를 토대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경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드로비모를 성전으로 데려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들은 사람들이 대답하였습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피고인이 나타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에베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본 것을 공증된 문서로 남기는 것조차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트로피모스가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지역 교회는 나중에 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시점에서 곤경에 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로피모는 에베소 출신이었습니다. 고발자들은 에베소 출신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곤경에 처한 이유인 에베소로 돌아갈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로마서 15장 31절에서 환난을 기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만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에 도착하면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썄, 이 시점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가르침 때문인지 에베소 교인들과 에베소에 있는 바울의 원수들은 그가 더 큰 성전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새 성전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 다른 많은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 말은, 아마도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하나님께 성전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정기적인 기도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시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에녹 첫째는 성전 회복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쿰란 공동체는 새로운 사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옛 성전이 부패한 대제사장들에 의해 더럽혀졌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마도 에베소가 지배적인 위치인 원형 편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회람 편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환영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는 바울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말은, 로마서에서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용어로 함께 결합되는 방식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는 내 문화적 맥락에서 우리가 분리된 점심 카운터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에게 도전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따로 먹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복음에 반대되는 것이며 복음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또한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성지보다 새 성전에 대해 더 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옛 성전에 대한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새 거룩한 곳의 모퉁잇돌이 되는 것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성전에 대한 심판의 이유 중 하나는 이 집이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아마도 심판에 관한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를 생략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구약의 성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안쪽 뜰은 오직 주님만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다음은 제사장의 성소인데 그 외에는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 밖에는 바깥뜰이 있었습니다.

바깥뜰에서는 모두가 환영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은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바깥뜰에서 환영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제정한 정결 규정으로 인해 헤롯 성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했습니다.



바깥뜰은 이제 유대인 남자들을 위한 이스라엘 뜰로 나뉘었고, 그 바깥 아래에는 유대인 남자들보다 덜 깨끗하다고 여겨지는 유대인 여자들을 위한 여자 뜰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더 낮은 층에는 이방인들이 지나갈 수 없는 새로운 바깥뜰이 있었습니다. 멋진 환영 표시는 이방인들에게 만약 그들이 이 지점을 지나면 그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이며 곧 뒤따를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요세푸스는 그러한 표징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또한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는 오래 전에 사원 지역에서 일부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서 일부 에베소 유대인들은 바울이 성전에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우리 회당을 쪼개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또한 에베소에서 폭동을 일으켜 비난을 받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께서 에베소의 이방인인 드로비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니라 그들이 폭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폭동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 이방인을 성전의 분열의 벽으로 데려갔다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풀, 뭐, 풀은 구타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산에는 로마 요새 안토니아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내려다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시기에는 항상 보초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펠릭스는 형편없는 행정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대에는 온갖 종류의 암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군인들은 달려갑니다. 백부장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 시점에 군인들이 모두 달려갈 준비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장교 두 명이 많은 군인을 데리고 가서 바울을 구출하지만 자신들이 그를 구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군가를 붙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때린 유대 사람들은 실제로 혁명가 외에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암살자 중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전파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마도 맞고 난 뒤의 그 시점에서는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가장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맞을 때에도 계속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는 아람어로 설교했습니다. 그는 공통된 문화적 기반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관한 그의 증언을 잘 들었습니다.

상황은 더 이상 사도행전 2장과 같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순절에 맞춰 그곳에 도착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사도행전 2장이나 정확한 오순절 절기처럼 정확한 오순절 날이 아닐 수도 있는 바울의 오순절 설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바울의 오순절 설교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듣는 데 훨씬 더 개방적입니다. 내 말은, 여러분에게는 많은 동료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좋아하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대규모 운동인 토착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법을 지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점 때문에 그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모든 공통점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단지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되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보내시되 이방인에게로 가라 하였느니라. 글쎄, 그것은 이 사람이 이방인과 관련이 있거나 어쩌면 이방인을 그와 함께 성전에 데려갔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그들 중 일부가 확증해 줍니다. 아람어로 말하는 것의 좋은 점은 그를 고발하는 에베소 유대인들은 헬라어만 알고 그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로마의 호민관인 칠리아크 역시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이 실제로 화해, 민족 화해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폭동을 선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부르심을 빼놓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이 왜 그렇게 논란이 되었는가? 바로 이 시점에서 상황이 매우 양극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로마 전쟁이 발발하기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로마가 유대를 너무 가혹하게 대하고, 민족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양극화되면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각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싶다면, 인기를 유지하고 싶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정확히 자기 측에 말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양극화됩니다. 정치와 다른 곳에서 사회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Paul은 그것을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종을 초월하여 사랑할 수 없다면 자신을 예수님의 연인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종을 넘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족 경계 반대편에 신자가 많지 않다면, 글썄요, 일부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폭동이 다시 시작되었고 바울은 결국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과 에베소 주변 지역에 편지를 쓸 때, 그는 아마도 로마의 보호 아래서 쓴 것 같습니다. 글썄, 그는 로마 구금에서 글을 썼는데, 아마도 로마에서 왔을 것입니다. 그는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로마로 옮겨졌습니다.

에베소의 신자들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를 알았을 것입니다. 트로피모는 에베소 출신이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에베소에서도 바울을 비난하고 싶어했던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도 역시 에베소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그의 첫 번째 청중에게 성전에 있는 이 벽보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분열을 더 잘 상징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막힌 담이 무너졌다고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2:14, 그 자신이 우리의 화평이시니 아마도 미가의 말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순결의 규례에 기초를 두신 것이라 그 성벽은 제사장들의 성벽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인종 화해를 논의하는 것이 모든 집단에서 인기를 끌기 전날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몇 년이 지나 그가 가이사랴를 떠난 지 불과 몇 년 만에 유대인과 시리아인들이 가이사랴 거리에서 서로 학살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는 한 시간 안에 18,000명의 유대인이 가이사랴에서 학살당했다고 말합니다. 빌립과 그의 네 딸, 그들과 예수를 믿는 다른 유대인 신자들이 많이 떠나 에베소 인근 지역에 정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0년 후, 로마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지 10년 이내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그 생존자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새 성전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시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바울은 성전 바깥뜰로 끌려가고 문은 닫힙니다. 왜? 그들은 그의 피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그를 죽이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그를 때려죽이고 싶어 하지만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소, 피난처로 여겨지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를 때리는 것은 아마도 레위인 경비병들도 이에 참여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유대에서 로마가 허용한 자동 사형 중 하나는 누군가가 성전의 신성함을 범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은 성전에 들어가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는데 이방인을 취하였다고 비난을 받았으나 이방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군인들은 우연히 바울을 구출했는데, 이 일에 대해 트리뷴은 나중에 기꺼이 그 공로를 인정했지만, 바울은 당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연히 바울을 구출합니다. 우리는 안토니아 요새가 어떻게 바깥뜰을 내려다보고 있는지 언급했습니다.

고고학과 요세푸스는 안토니아 요새에서 바깥뜰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는 병사들을 언급하니 이곳은 아주 넓은 계단이었습니다. 단일 파일을 실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군중은 사도행전 19장의 군중처럼 혼란에 빠졌습니다. 폭도들은 실제로 모든 정보를 얻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민관은 바울이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자 할 때 군중에게서 다른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요세푸스가 말하는 이집트의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요세푸스도 언급한 암살자 시카리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Sicarii가 한 일은 단검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Sicarii라고 불린 것입니다. 단검을 라틴어로 사용하여 망토 아래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고 은밀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혼잡할 때 공개적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귀족들이 로마와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몇몇 귀족들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적어도 나이든 귀족들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망토 밑에서 단검을 꺼내고, 단검을 귀족의 몸에 남겨두고, "오 안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봐"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랬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불비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불비기 때문에 누가 그에게 단검을 꽂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이 암살자들 중 한 명이 체포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이집트 거짓 선지자가 도망갔다면 우리는 군중을 해산시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선지자라면 그는 이것이 그의 경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는 Paul이 연설을 하기 전에 Paul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아, 그리스어를 아세요? 그러니까 당신은 얼마 전 광야에서 사람들을 인도했던 그 애굽 선지자가 아니군요. 이집트 유대인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했지만, 그것은 좋은 그리스어, 즉 지중해 북부의 그리스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그리스어와는 달랐습니다. 파리지앵 프렌치(Parisian French)를 떠올릴 수도 있다.

내 아내는 프랑스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밟을 때 완벽한 파리식 프랑스어를 구사했습니다. 콩고 프랑스어는 프랑스어지만 그녀는 파리에서 가장 존경받는 프랑스어인 완벽한 파리 프랑스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학교에 가는 동안 자립을 돕기 위해 임시직을 구하러 전화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 그래, 일하러 오세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녀가 그곳에 도착하면 사람들은 "오, 당신 흑인이군요"라고 말하더군요. 여기서는 흑인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완벽한 파리 프랑스어를 구사했기 때문에 그녀가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차별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부터 전화하면 '안녕하세요 메디네예요'라고 하더군요. 나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난 까매. 아프리카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어딘가로 가는 버스 요금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녀는 완벽한 파리 프랑스어를 구사했습니다.

영어라고 하면 영국식 영어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미국인이예요. 우리는 영국 표준에 따르면 일종의 타락한 영어를 사용합니다.

케냐와 나이지리아,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여기 미국에서 말하는 방식보다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억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게해 액센트, 어쩌면 이 시점쯤에는 아테네 액센트까지 사용하여 그리스어를 말하는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다락방 액센트는 그리스어의 가장 순수한 형태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그리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리스어를 잘해요.

그리고 호민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인인 클라우디우스 리시아스(Claudius Lysias)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길, 당신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까? 당신은 한 무리를 광야로 이끌었던 시카리 부족 중 하나가 아니신가요? 글썄요, 광야에는 메시아 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광야에서 새로운 탈출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너무 가까워졌을 때 로마의 개입이 있었지만 그곳은 로마의 개입 없이 군중을 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도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여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광야에 길을 예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광야에서 새로운 탈출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2장, 호세아 11장, 이사야 11장, 이사야, 그리고 나중에는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 출신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로 하찮은 도시가 아닌 도시인 다소의 시민입니다. 글썄요, 시민의 자부심은 큰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2세기 초에는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시민적 경쟁도 많았지만 시민적 자부심도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바울이 다소의 시민이 된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되는 것만큼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좋은 그리스어를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다소 시민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글썄, 그것은 사실이다. 비록 그가 예루살렘에서 자랐을지라도 이것이 그의 다음 청중들에게 강조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다가 유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실,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Paul은 군중에게 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트리뷴은 '아, 그가 이 군중을 더욱 진정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미 어느 정도 침묵을 지켰지만 이제 호민관이 그가 말하도록 허락한 것을 보고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람어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매우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거나 적어도 우리 문화를 망치거나 우리 문화를 폄하하려는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어를 잘 할 뿐만 아니라 아람어도 구사합니다.

그의 아람어는 약간 녹슬었을지 모르지만 아시다시피 그는 Tarsus에서 태어났지만 아마도 일찍부터 예루살렘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스어뿐만 아니라 아람어도 배웠을 것입니다. 자녀가 여러 곳에서 자라거나 부모의 자녀가 한 문화권에 속하지만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경우, 두 가지 문화를 모두 듣는다면 자녀는 이중 언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Paul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는 다소에서 태어났으나 예루살렘에서 자랐다고 말합니다(22-3). 앞서 말했듯이 Tarsus는 대학 중심지였지만 많은 Tarsians가 고급 연구, 즉 해외에서 고등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3차 공부보다 더 많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진보된 연구는 분명히 성경의 헬라어 형태인 칠십인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나는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자랐습니다. 그리고 대개 헬라어 문학에서 이 단어들을 함께 사용한다면, 이는 그가 청년 시절의 대부분을 예루살렘에서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람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이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부 번역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문자 그대로는 가말리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미슈나 아봇 1-1, 그것은 제자에게 적합한 자세였습니다.

당신은 선생님의 발 앞에 먼지 속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0-39장에 나오는 제자의 올바른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 구절에서 마르다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특이하고 특별한 종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제자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말리엘의 발 앞에 있습니다.

그는 그에게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가말리엘이 가르친 가장 중요한 것, 즉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라는 것을 그에게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신을 발견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고, 막대기를 발로 차고 결국 돌아서게 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좀 덜 자세하게 다루게 될 때 다른 곳에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 교육을 받은 아그리파 왕과 페스투스는 확실히 에우리피데스의 환상을 사로잡았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제자의 올바른 자세.

가말리엘은 아마도 그들 중 가장 엘리트인 바리새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집안에서는 히브리어 고전인 성경뿐만 아니라 그리스어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토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인 토라에 대해 그리스어로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의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도 그가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족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옮겨왔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예루살렘에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주로 바리새인을 알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의 조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여동생이 교육을 위해 그곳으로 보내지지 않는 한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온 가족이 그곳으로 이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그 후 가말리엘 밑에서 고등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율법에 열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점점 더 특정한 방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와의 전쟁이 발발할 무렵에는 혁명가 그룹 중 하나가 열성적인 열심파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 열성적인 마카베오 가문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마카베오의 모델은 율법에 열심이었던 비느하스였습니다. 글쎄, 어떻게? 비느하스는 대제사장의 한 사람으로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염병을 그치게 하였습니다. 그는 아직 구약의 대제사장인 Rosh HaKohen은 아니었지만 대제사장 가문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아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가서 공개적으로 죄를 짓고 전염병을 멈추게 한 가장 명백한 부부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실제로 아브라함과 창세기에 대해 사용한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사울은 그에게 의로 여겨질 일에 대해 미리 그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함으로써 율법에 대해 열심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그가 그것을 언급할 때, 그는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동일한 집단인 대제사장들의 모든 지식과 위임을 받아 그 일을 했다고 언급할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불법으로 간주되는 이 불법 활동에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한 다음 이방인에게 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그의 비전은 이방인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폭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망토를 벗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스티븐과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들은 먼지를 공중에 던지고 있습니다.

던질 돌은 없지만 먼지를 공중에 던집니다. 어쨌든 그들은 근처에서 있는 군인들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복할 수도 있고 이전 세대에서도 보복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사람을 떠나면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군중이 예수에 대해 외치는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래서 스테반은 성전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는 살해당했습니다.

바울은 성전에 관해 말했고 하나님은 로마인들을 사용하여 개입하여 그의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예언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회심하기 전에, 성경은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도행전의 마지막 분기에는 구금된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분기가 왜 그토록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글쎄요, 한 가지, 루크가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인 누가복음을 절정에 이르게 하는 바울에 대한 변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구금된 사울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여기 바울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면 이방인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과 관련된 모든 죄책감은 디아스포라 교회와 이방인을 향한 선교에 반영됩니다. 이미 빌립보서 1장과 디모데후서 1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사슬 때문에 그를 떠나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누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도행전은 부분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유일한 이유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행전은 부분적으로 바울을 옹호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야기에 나오는 예수님처럼요. 빌라도는 내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내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예수와 이곳의 바울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죄를 찾는 일을 맡은 사람들은 아무 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죄가 없었습니다. 그는 법적인 이유도 아니고 상식의 부족도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위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폴은 왜 가나요? 누가는 헌금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지만 바울은 신성한 필요 때문에 갑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고대 수사학의 표준적인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셨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대개 꽤 좋은 주장으로 간주됩니다.

글쎄, 당신은 들었고 Paul은 그것을 매우 확신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눈이 먼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언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바울은 눈이 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오고 있음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바울의 서신에서 볼 수 있는 것과도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유대에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그에게서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로마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에게 요점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이미 Paul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분기인 바울을

이미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사도행전 마지막 분기의 추진력은 법적, 역사적, 기타 종류의 변증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가능하면 사람들의 반대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반드시 우리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들의 반대 의견에 답하고 우리의 주장을 확고한 근거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쎄, 바울은 로마 구금에 있으며 이제 그들은 칠리아크인 호민관을 심문하기로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는 안토니아 요새에 있는 전체 로마 부대를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트리뷴에서는 바울이 왜 이런 비난을 받았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합니다. 왜 다들 그 사람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심문할 것이고 그들은 고문과 강제로 그를 심문할 것입니다.

Paul은 사슬에 묶여 있고 그들은 그를 구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을 때리는 것이 옳습니까?”라고 말합니다. 글쎄, 재판 없이 그를 사슬에 묶는 것조차 합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너무 멀리 나아갔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일부러 그렇게까지 기다렸을지 모르지만 구타는 매우 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백부장은 호민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아십니까?” 그는 트리뷴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트리뷴이 이 일을 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것을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불평을 하면 주지사는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부하 직원인 트리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서 소환된 또 다른 총독이 있었는데, 유다 사람들의 불평에 응하여 그들을 진정시키고 정치적으로 만족시키라는 명령을 수행했던 그의 호민관이 그 사람을 끌어당겨 4등분하고 예루살렘 거리로 끌고 다녔습니다.

그는 살해 당했다. 따라서 호민관은 자신이 로마 시민을 잘못된 방식으로 학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말은, 로마가 모든

사형을 승인하고 지방에서 사형을 집행해야 했던 모든 이유는 누구도 로마에 대한 충성 때문에 로마 시민들을 학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리분이 Paul을 찾아왔고 그는 이미 피해 통제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이것은 오래 전에 Cadbury가 제안했고,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따랐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와서 “나는 시민권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당신은 로마 시민입니까? 예. 글썄요, 저는 거액으로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울처럼 로마인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룹이나 개인, 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군 복무였습니다. 또 하나는 제조였습니다. 글썄요, 그것은 로마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다음으로 가장 흔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조상은 아마도 그렇게 로마 시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뇌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리시아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시민권을 얻기 위해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것은 클라우디우스의 통치 초기에는 매우 흔한 일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서 그가 클라우디우스 리시아스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당신이 당신의 은인의 이름을 따왔기 때문입니다. 리시아스는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클라우디우스 리시아스는 그의 로마 시민 이름입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보유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저렴해졌습니다. Lysias는 Paul이 그의 것을 값싸게 얻었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바울은 실제로 라틴어 문구를 반영하지만 그리스어로 주어진 문구를 사용합니다. 나는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트리뷴은 내가 Paul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좀 다르게 대해야 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이 취소되고 Paul이 나를 좋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폭도들이 아니라 전문가들을 통해 이러한 혐의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 이 산헤드린을 소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다음 세션에서 또 다른 마피아 장면을 찾아볼 곳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Dr. Craig Keener입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22장까지의 21회기입니다.